

중어중문학 교육과정의 개선 : 현실 수요에 부응하여

유 범 례

성신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2000년의 교육 개방을 눈앞에 두고 각 대학마다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스럽다. 교육발전 기금을 마련하느니 특성화교육을 하느니 눈만 뜨면 각 대학의 발전안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이에 뒤질세라 대학마다 앞다투어 묘책을 내어놓느라 야단법석이다. 하지만 국제화 세계화만 부르짖고 묘책만을 내놓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에 앞서 우리의 대학교육은 과연 현실정황을 고려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합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들 대학이란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학리와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함양하는 곳이라고 한다. 대학교육이 보편

화되지 않던 시기에는 소수 엘리트를 양성하고 인격을 함양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명을 다했다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대학이라는 곳이 안정된 신분상승 내지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 관문으로 인식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수요자의 요구를 외면한 채 막연히 상아탑에 안주하여 학리연구에만 몰두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오늘의 대학은 연구기능과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하는데, 연구자가 되기 위한 교육과 사회에 나아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재 뭇을 다 해낼 수 있는 실무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대만 출신 학자 리웬저(李遠哲)는 대학교육의 목표를 실용성에 두고 있다. 그가 이런 목표를 세운 데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그가 누구나 선망하는 타이완대학 화학과에 입학해서 친지

들의 축복을 받으며 대학 문을 나선 직후의 일이었다. 화단의 원로 화가인 그의 부친이 하루는 물감이 다 떨어졌으니 아들에게 물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리웬저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명문대학 화학과를 자그만치 4년씩이나 다니고도 물감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까짓 대학 있으면 무엇하겠느냐며 개탄하였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그는 실용성이 결여된 학문은 단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늘 실용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에 몰두하였다고 한다. 그는 지금 대만학술의 최고 권위인 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학문의 실용성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 대만학문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공으로 차기 대통령후보 물망에 오를 정도로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그의 일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우리의 대학교육의 현실 역시 이론과 실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질림발이들을 양산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문과에 몸을 담고 있는 필자는 중문과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 보면서 그 개선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필자가 소속한 환경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간혹 보편성이 결여된 곳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점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2. 중국문학과의 연혁과 현황

국내 중국문학과의 외적인 발전단계는 크게 삼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발전 단계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단계는 1945년 서울대학을 필두로 중문과가 설립된 이래 1950년대 초반에 신홍대학교(경희대학의 전신)와 50년대 중반 한국외국어대학과 성균관대학에 각각 중문과가 설치되

기까지의 단계로서 중문과는 유명무실한 존재로서 근근이 그 명맥만을 유지해왔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제2단계는 1970년대 초반 이른바 미국과 중국의 평풍외교 바람을 타고 1972년 숙명여대·고려대·단국대를 선두로 1974년 연세대와 전남대에, 75년에는 청주대, 76년 영남대에 각각 중문과가 신설되기까지이다. 이 시기는 제1단계에 비한다면 비약적인 양적 팽창을 이룩한 시기이긴 하나, 냉전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중국문학과는 여전히 세인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특히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문과는 왕왕 국문과로 오인되었으며, 그런 과도 있었느냐고 반문할 정도로 그 존재는 제1단계의 형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급진전됨에 따라 중국문학에 대한 관심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며 높아졌다. 1979년 국립대학 5개교에 중문과가 설립된 것은 이러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제3단계는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이다. 이 시기는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외교적 교류가 가시화됨에 따라 그야말로 우후죽순격으로 중국문학과의 거의 모든 4년제 대학에 설립되다시피 하였으며, 중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중국문학과는 전문대학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적 팽창의 극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제 중국문학과는 세인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 명실상부한 인기학과로 부상한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문학과의 발전은 중국과의 외교적 발전에 따라 현실적 수요와 함께 그 궤를 같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학과의 교육목표 역시 현실상황의 변천과 수요에 따라 개편되었어야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대학의 중국문학과는 시대에 따라 발빠른 변화를 모색하여 왔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표 1〉 전공 교과과정의 분류

영역	분 야	
어학영역	① 어학(Ⅰ)분야	회화, 작문, 강독 등 실기 분야
	② 어학(Ⅱ)분야	기초 학문(언어학 등)분야
문학영역	③ 문학분야	문학 관련 분야
	④ 기타분야	도구 과목 및 기타 분야

3. 교육과정 분석

여기에서는 국내 주요대학을 표본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남녀공학과 여자대학을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양자간에 어떤 특성과 개성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각 대학은 전공 교과과정을 이수 영역에 따라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교과과정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일관하기 위해 편의상 어학영역과 문학영역으로 大分한 다음 다시 각 분야별로 세분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위의 표는 각 대학 요람에 명시된 전공 교과 과정에 의거하여 분류한 것이다. 여기에서 기타분야란 어학과 문학을 제외한 중국학 관련 학문을 지칭한다. 예컨대 기초한문, 경서강독,

중국문화·정치·역사·경제 관련분야의 학과목이 이에 속한다. 〈표 1〉의 분류에 의거하여 각 대학 전공과정 분야별로 과목수와 학점수를 살펴보면 〈표 2〉, 〈표 3〉과 같다.

〈표 2〉,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대학의 전공과목 개설수와 학점수는 학교마다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다. 남녀공학 대학의 경우 평균 40과목에 113.5학점을 전공 교과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는 반면, 여자 대학은 평균 25과목에 86학점을 개설하고 있다. 그 중 성심여대는 전공과목 개설수와 학점수가 모두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남녀공학 대학과 여자 대학이 이렇듯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전자가 전공선택을 보다 다양하게 개설해 놓고 있는 반면, 후자는 명색이 전공선택이지 실제적으로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개설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공선택과정의 증설은

〈표 2〉 남녀공학 대학 전공분야별 과목수 및 학점수

대학	어학 (Ⅰ)		어학 (Ⅱ)		문 학		기 타		총 계	
	과목	학점수	과목	학점수	과목	학점수	과목	학점수	과목	학점수
경희대	16	48	5	15	12	36	3	9	36	108
서울대	6	18	2	6	29	60	6	18	34	102
연세대	13	39	6	18	18	54	8	24	45	135
고려대	17	47	6	18	20	60	14	45	58	170
성균관대	17	39	4	11	19	56	1	3	41	109
한양대	14	42	3	9	13	39	6	18	36	108
경북대	8	24	3	9	18	54	4	12	33	99
한국외대	20	38	2	4	9	18	11	25	42	85
부산외대	21	60	4	12	9	27	8	24	42	123
인하대	13	35	2	6	5	15	15	40	35	96
계	141	390	37	108	143	419	76	218	402	1,135
평 균	14.1	39	3.7	10.8	14.3	41.9	7.6	21.8	40.2	113.5

〈표 3〉 여자 대학 전공분야별 과목수 및 학점수

대학	분야	어학 (Ⅰ)		어학 (Ⅱ)		문 학		기 타		총 계	
		과목	학점수	과목	학점수	과목	학점수	과목	학점수	과목	학점수
덕 성		9	31	2	6	8	27	3	10	22	74
성 신		9	35	2	9	10	34	3	9	24	87
성 심		6	30	6	24	16	48	1	6	29	108
숙 명		9	27	3	9	13	42	2	9	26	87
이 화		5	15	3	9	15	48	1	3	24	75
계		38	138	16	57	62	199	10	37	125	431
평 균		7.6	28	3	11	10.4	39.8	2	7.4	25	86

〈표 4〉 남녀공학 대학 전공과목의 분야별 분포상황

대학	분야	어학 (Ⅰ)		어학 (Ⅱ)		문 학		기 타		총 계
		과목	학점수	과목	학점수	과목	학점수	과목	학점수	
경희대		44%		14%		33%		9%		100%
		58%				42%				
서울대		18%		6%		59%		17%		100%
		24%				76%				
연세대		29%		13%		40%		18%		100%
		42%				58%				
고려대		28%		11%		35%		26%		100%
		39%				61%				
성균관대		36%		10%		51%		3%		100%
		46%				54%				
한양대		39%		10%		36%		17%		100%
		47%				53%				
경북대		24%		9%		55%		12%		100%
		33%				67%				
한국외대		45%		5%		21%		29%		100%
		50%				50%				
부산외대		49%		10%		22%		19%		100%
		59%				41%				
인하대		36%		6%		16%		42%		100%
		42%				58%				
평 균		34.8%		9.2%		36.8%		19.2%		100%
		44%				56%				

증설은 학교의 재정과 직결되는 동시에 관련 학문분야의 전문교수를 초빙하는 어려움과 맞물려 있으므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점진적으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전공과목의 각 분야별 분포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분야별 점유율을 산출해 보면 〈표 4〉와 같다.

위의 〈표 4〉를 다시 분야별 평균치로 4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여자 대학 전공과목의 분야별 분포상황

대학 \ 분야	어학 (I)	어학 (II)	문 학	기 타	총 계
덕 성	41%	9%	36%	14%	100%
	50%		50%		
성 신	42%	10%	38%	10%	100%
	52%		48%		
성 심	28%	22%	44%	6%	100%
	50%		50%		
숙 명	32%	10%	48%	10%	100%
	42%		58%		
이 화	20%	12%	64%	4%	100%
	32%		68%		
평 균	32.5%	12.5%	46%	9%	100%
	45%		55%		

1) 남녀공학 대학

① 어학분야(1)이 평균치(34.8%)를 상회하는 대학 : 경희대, 부산외대, 성균관대, 인하대, 한양대, 한국외국어대

② 어학분야(2)가 평균치(9.2%)를 상회하는 대학 : 고려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외대, 성균관대, 연세대

③ 문학분야가 평균치(36.8%)를 상회하는 대학 : 경북대, 성균관대, 서울대, 연세대. 문학 부분은 크게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대부분 현대문학보다는 고전문학에 비중을 두고 있다.

④ 기타 분야가 평균치(19.2%)를 상회하는 대학 : 고려대, 부산외대, 인하대, 연세대, 한국외대. 이 중에서 고대와 연대는 기타분야 교과 과정이 대부분 경학·한문·역사 등과 같이 순수 학문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부산외대, 인하대, 한국외대와 같은 학교는 중국정치·경제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를 다시 어학분야와 문학 및 기타분야로 이분하면 어학 점유율이 50%를 넘는 학교는 10개 대학 중에서 경희대, 한국외대, 부산외대 등 3개 학교였으며 나머지 대학은 문학 및 기타(사학·철학)분야가 어학분야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대학이 학문의 실용성보다는 학리적 연구에 치중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 여자 대학

① 어학분야(1)이 평균치(32.5%)를 상회하는 대학 : 덕성, 성신, 숙명

② 어학분야(2)가 평균치(12.5%)를 상회하는 대학 : 성신, 성심여대의 경우는 평균치를 훨씬 상회한 22%를 점하고 있다.

③ 문학분야가 평균치(46%)를 상회하는 대학 : 숙명, 이화. 이화여대의 경우는 문학분야가 평균치보다 18%나 많은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전문학에 편중된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④ 기타분야가 평균치를 상회하는 대학 : 덕성, 성신, 숙명. 기타 학문분야의 교과내용은 대부분 한문강독·경서강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관련 정치·경제분야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다시 어학분야와 문학 및 기타분야로 이분하면 성신여대는 어학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덕성과 성심은 50 대 50의 비

을 이루고 있다. 이화와 숙명은 문학 및 기타분야가 각각 68%와 58%로 우세하다. 여자 대학의 경우 어학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학의 경우 대부분이 어학실습 내지는 초급·중급·고급 등과 같이 막연하게 분류하여 교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남녀공학 역시 예외가 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자기 다른 언어환경에 따라 그에 걸맞은 언어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겠다.

이상의 분류를 통하여 우리는 국내 중어중문학과와 전공 교육과정의 실상을 조감하였다. 표본 추출한 대학 중 외국어대학 안에 설치된 중국어과라는 명칭을 지닌 학교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대학이 순수학문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교육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현대문학 보다는 고대문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글머리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중어중문학과와 증설은 시대적 수요의 산물임을 고려한다면 晩時之歎의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현실적 수요를 감안해서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교과과정의 개편방향을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실용회화 60%와 중국학 40%(문학·정치·경제·역사 관련 과목 : 현대를 중심으로 한다.)

최근 중국학과라는 명칭으로 신설된 학교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며 교육과정 역시 앞에서 제시한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중어중문학과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중국학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만 시대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년 전 인하대학이 중어중문학과에서 중국어 중국학과로 개칭한 것은 이러한 현실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대폭적인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야기될 문제점 역시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小我的 자아의 극복과 관련분야 인재 초빙 그리고 교재개발 등이 가장 지난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4. 맺음말

우리의 교과과정은 과연 실용성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하여 짜여졌는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렇지 못한 것이 지난간의 상황이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 중국문학과는 시대적 수요 아래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각 대학의 현 교과과정은 대부분이 순수문학을 연구하는 학리적 연구기능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것도 고전문학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의 교과과정은 인격도야나 학자양성에는 어느 정도 이바지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졸업 후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서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담당하는 데는 역부족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다급한 목소리로 선생님을 외치며 중국측 회사로부터 전송되어온 팩스를 거머쥐고 헐레벌떡 뛰어오던 졸업생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안쓰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

많은 상사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고 중국과의 교역이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현실적 수요에 맞추어 교과과정도 개편되어야 마땅하다. 현대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역사·문화 등 다각적인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므로 관련 분야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어학교육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실용어학 역시 세분화하여 교수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관광언어, 무역언어, 일상언어, 사교언어, 외교언어, 시사언어 등과 같이 분화하여 교수해야만 자기 다른 언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실용학문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리적인 연구기능은 대학원 몫으로 돌

려야 할 것이다.

5. 여 론 — 진로지도의 애로점

강단에 서서 제자를 오도한 지도 어느덧 십년이 넘었다. 해를 거듭하는 동안 연말이면 나는 언제나 연중행사처럼 속앓이를 하여 왔는데 그걸 다름 아닌 사은회에 참석하는 일 때문이었다. 장미빛 미래를 꿈꾸며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반짝이며 대학생들을 시작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 인생을 다 산 듯한 표정으로 어쨌 죽지를 축 늘어뜨린 채 고별의식을 거행하는 자리가 바로 사은회인 것이다. 그래도 4년 동안 배운 것이 낫하오에 더하여 論語曰 孟子曰인자라 스승의 은혜를 소리 높여 부르고 은성한 만찬에다 푸짐한 선물까지 안겨주는 데야 그저 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뿐이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가르쳤으니 미안할 게 없다. 대학은 학문탐구를 통해서 인격을 도야하는 곳이지 기능인양성소가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위로해 보기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은 좀처럼 가시질 않는다. 이렇게 난 열 번의 사은회를 치러 왔고 학생들은 사은회를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집안에 칩거하는 閨中處女들이 되었다. 경제적 자립이 곧 인격의 자립이요, 직업은 필수요 결혼은 선택이라는 의식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 그들로서는 배움의 끝이 바로 규방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한탄스러울 것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성신여자대학 중문과 졸업생의 취업현황을 보면 중소 여행사나 무역회사에 잠시 근무하다가 사회적 제약과 처우에 대한 불만을 극복하지 못해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개중에는 극소수이긴 하나,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나름대로 전문직을 찾

은 학생도 있다. 서해안 경제시대의 개막으로 인하여 중국과의 무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각 기업에서는 여전히 여성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제약이 이러한 진대 투쟁해서 생취하는 길은 아직 너무나 요원하다. 그리하여 필자는 학생들에게 진로지도할 때면 언제나 남녀 공히 경쟁할 수 있는 분야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선천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추천한다. 예컨대 교수, 외무공무원, 동시통역사, 번역사 등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에 진출하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 식이어서 여전히 그림의 떡 내지는 여우의 신포도 역할만을 담당할 따름이다. 그리하여 난 해마다 그 고역스런 사은회를 치르며 ‘사회적 진출만이 능사가 아니다. 전업주부로서의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룩하고 훌륭하게 아이를 키워 국가의 동량을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남성들이 구비하지 못한 여성만의 능력’이라고 열변을 토한다. 그들의 쉼없는 마음도 달래주고 내 마음도 위로해 보고 싶어서다. 그러나 제아무리 귀거래사를 목청껏 부르며 진원에 은거했던 도연명이라 할지라도 끝내 세상에 쓰이지 못한 마음의 辛酸함을 토로했듯이 그들 또한 마음 속 깊이 감추어진 울분을 어찌할 수 없어 현란한 조명 아래서 잠시나마 忘我의 경지에 내맡기는 몸짓으로써 사은회를 마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

유범례/숙명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국립대 만사범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신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역서로 『시인의 죽음』, 『선택』 등이 있고, “왕창령의 시에 나타난 반전사상”, “白居易의 풍유시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